

데스크시작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헤이 온 와이(Hay on Wye) 책 마을로 가는 길은 녹록지 않다. 런던 유스턴 스테이션에서 버밍햄행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린다 다시 해리포드행 기차로 갈아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종착역인 해리포드역에서 내려 1시간 정도 마을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기면 여정은 더욱 팍팍해진다. 해리포드역에서 헤이온와이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하면 스케줄이 완전 ‘꼬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필자의 경우가 딱 그랬다. 해가 쬼어지는 10월 이후부터는 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해리포드 역 증축 공사라 버스 승강장이 변경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정각 11시에 출발하는 헤이 온 와이 버스를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다음 버스는 오후 1시30분 출발. 불안한 마음에 점심을 먹는 등 마는 등 추우다 때운 후 정류장에서 1시간을 꼬박 기다린 끝에 헤이 온 와이행 버스에 올랐다.

은편칼럼



심명섭
행정학 박사·효령노인복지타운 도서관장

푸르기만 한 나뭇잎들이 하나 둘 갈색으로 변하면서 단풍이 드는가 했더니 세찬 바람에 어느덧 낙엽 지는 소리가 컸가를 스친다. 나이가 들수록 낙엽 지는 소리 또한 더 크게 들린다고 한다. 나무처럼 우리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거기에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생 주기에서 노년기의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평균 수명 연장! 즉, 오래 산다는 것은 인류의 염원이자 꿈이었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의미이

기 고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 호텔에서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렸다. 전라도 방문의 해는 ‘천년의 길, 천년의 빛’을 주제로 전라도가 걸어온 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예술, 자연경관, 생활상 등을 관광 자원화하고 전라도만이 가진남도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모처럼 이웃 전북지역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전라도’라는 동질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라는 이름이 사용된 지 꼭 천년이 되는 해로, 우

헤이 온 와이와 문화 광주

차창 밖으로 펼쳐진 시골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과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보니 버스를 놓쳐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을 한참 동안 달린 버스는 오후 2시30분에 종점인 헤이 온 와이에 닿았다. 런던에서 아침 8시20분 기차를 탔으니 무려 6시간이 넘는 긴 일정이었다. “접근성이 최악인데도 어떻게 글로벌 명소가 됐을까?” 버스를 놓친 순간 땀뚝뚝 글썽이 불현듯 떠올랐다.

광산촌, 책 마을로 바뀌다

헤이 온 와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계에 자리한 산간 마을이다. 런던에서 자동차로도 5시간 남짓 걸리는 오지(奥地) 중의 오지다. 1950년대 초반만 해도 광산촌으로 유명했지만 석탄이 바닥나면서 급속히 쇠락했다. 하지만 지난 1961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 출신의 20대 청년 리처드 부스(Richard Booth·84)가 마을 소방서 건물 한쪽에 한책방을 연 후 세계적인 책 마을로 변신했다. 처음엔 산간벽지에 무슨 책방이냐며 부스를 바웃했던 마을 주민들이 런던, 아일랜드, 미국을 돌아다니며 허허근 고서와 한책들을 모으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아 하나둘씩 빈집에 책방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헤이 온 와이는 900년 전 노르만 왕족인

브라우스 2세가 세운 고성(古城)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한책방이 출지어서 있다. 세월의 더께가 묻어 있는 한책과 16~17세기 고서, 신간 등 100만여 종의 서적이 비치돼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불러들인다. 한창 잘 나갈 때는 40여 곳에 달했지만 임대료가 뛰어오르는 젠트리파케이션 영향으로 현재는 20곳의 서점과 카페, 식당, 아트숍, 빈티지 가게 등이 성업 중이다. 경기도 파주 책마을이 헤이 온 와이에서 영감을 얻은 것만 봐도 그 명성을 잘 알 수 있다.

지난달 서울 흥대 입구에선 경의선 책거리 1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경의선 책 거리는 지난해 10월 말 마포구청이 흥대 입구 역 6번 출구에서 와우교까지 약 250m 이르는 옛 경의선 철길 자리에 조성한 책 테마 거리다. 책 한 권의 가치를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자는 콘셉트로 인근의 동네 서점과 출판사, 카페 등을 연계시켜 관광 코스로 내놓았다. 개장 1년 만에 4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니 일단 성공적이다.

경의선 책 거리의 최대 수혜자는 주민과 동네 서점들이다. 고즈넉한 책방들을 산책하다 보면 저절로 책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가까운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고무된 서울시는 근래 수 십여 개의 책방을 11개의 책방 길로 묶은 ‘책방 산책 서울’을 발간하고 관광 투어를 운영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광주시 동구에서도 푸른길(옛 경

전선 폐선부지) 공원을 책 거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검토중이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푸른길 주변의 한책방과 동네서점들을 코스로 엮어 색다른 복합 문화 공간을 꾸민다는 것이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 있는 구도심 일대와 인근의 책방, 갤러리, 광주폴리 등 문화 자산들을 꿰어 낸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푸른길 공원을 책 거리로

사실 고즈넉한 책 향기가 숨 쉬는 책 거리는 문화 도시의 품격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 여부다. 책 거리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동네 서점들이 생존하는 여건이 보장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책을 읽지 않는 문화 속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 도시의 실타래인 동네 서점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 서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청년들이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경우 책값의 절반을 지원하는 순천시나 공공기관 도서관 구매 시 지역 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토록 조례를 제정한 광산구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야흐로 책을 가까이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언제쯤이면 광주에서도 헤이 온 와이나 경의선 책 거리처럼 근사한 문화 공간을 만날 수 있을까? /jhpark@kwangju.co.kr

비우는 일은 소극적인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

며, 노년기의 연장은 노년기 삶의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질적 고령화 문제를 포함한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어진 여생에서 노인이 뒹오르며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면서 나아가 타자 공헌적인 질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재평가하고 현재의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방식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얻도록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학습의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매순간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혼자 배우고 익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노년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고 배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는 ‘늙어갈 욕기’를 통해 자신의 병들었던 노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로 ‘아름과 늙

음, 그리고 죽음’과 조우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자문하면서 존엄하고 타자 공헌적인 노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가 철학자로서 삶을 돌아보고 노년의 삶을 통찰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노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노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활동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질병, 빈곤,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감이 늘고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다른 나라의 노인 세대와는 달리 과거에 전쟁의 참화를 딛고 산업화의 일순으로 살면서 자식 양육과 부모 부양에만 온 힘을 쏟고 살아오다가 자신의 노년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급변한 환경속에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정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노년의 경제적 기반의 확보와 더불어 심리적 건강, 사회적 적응 역량의 함양은 성공적인 ‘질적 고령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노인 전국인 이곳 효령복지타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계시는 어르

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들 어구투구로 말한다. 그렇다! 무엇인가를 주거나 버리거나 양보하거나 비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고정 관념이 강하고 분별심이 강해서 남의 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과 고정 관념이 뻥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채움의 전체 조건은 비워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뭉가기를 얻고자 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 하고,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다.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이고 지혜로운 삶의 한 페이지다”. 사람도 비어 있어야 뭉가 들어와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안으로 꽂차 있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조건을 해줘도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 육공은 생각을 지켜내고 잘못된 욕심과 집착은 내려놓고 비워 내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는 생각이다.

전라도 천년,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위하여

리에게는 각별한 해라고 할 수 있다. 한울타리에서 서로 형제처럼 지내오던 전라도는 1895년 1월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전남, 전북으로 양분됐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원해졌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을 5+2로 나누면서 광주, 전남, 전북이 동일경제권으로 묶이면서 갈등의 양상까지 보였다. 사이 좋던 전라도가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거나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호 이해가 상반되고 그러다 보니 틈새가 벌어진 것이다. 다행히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 남지사(현 국무총리), 송하진 전북지사가 민선 6기 들어서 종단됐던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며 공조 체제를 다시 구축하고 나섰다. 여기에 전라도 정도 천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전라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실무협의 회도 만들어 자주 만나면서 서로 여건과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윤 시장 등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빚가람혁신도시에서 D-1년 선포식을 가졌으며, 이어 광주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가진 바 있다. 우리 고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국악인

안숙선, 조상현 명창의 축하로 행사 열기는 뜨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타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함께 와서 축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이 전라도만의 행사까 아니라 중앙 정부,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지나치게 ‘전라도 행사’로 틀을 한정시킨 것 같다는 느낌이다. 전라도 출향 인사들도 많이 왔지만, 내로라하는 지도급 인사들은 또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전라도 방문의 해가 선포되는 역사적인 날부터 전국 방방곡곡으로 2018년이 전라도 정도 천년이라는 소식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장소 역시 호텔 별관 지하에 마련해 서울 시민들도 쉽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청 앞 광장에서 선포식을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자꾸만 생각났다. 그나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조형물 제막식을 하고 농악 축하 공연으로 행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주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얼마나 보도하고 있을까 싶어 모니터를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지역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 매체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전편 광고로 소개되고 메인

뉴스시간에 보도되었다면 파급 효과는 뜨거웠을까.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춘천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인천에서 길거리 홍보를 하면서 전라도의 매력을 알린다고 하니 기대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짜임새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본다. 해외가 있는 재외동포들도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또한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전라도인들에게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작 잘 알아야 할 우리 전라도인들이 의외로 전라도 천년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필자는 가는 곳마다 틈만 나면 천년의 전라도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모두 홍보대사가 되자고 역설하곤 한다. 우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내년에 전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북적대지 않겠는가. 2018년은 전라도 천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 버리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후손들에게 금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천년, 오는 천년, 2천년을 아우르는 우리의 책무는 더없이 크다고 하겠다.

社說

천차만별 아파트 관리비 표준화 서둘러야

광주 지역 아파트 단지에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rt)을 도입해 관리비 투명화를 꾀하고 있지만 부과 내역서가 표준화되지 않은 데다 세부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유령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광주 지역 600여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항목과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슷한 규모인데도 관리비 세부 내역은 2~3배나 차이를 보였다. 소득비의 경우 세대별로 회당 최저 1400원, 최고는 3400원으로 2000원 차이가 났다. 승강기 점검비는 최저 4만5000원, 최고 7만7000원으로 대당 3만2000원이나 격차를 보였다. 전기 안전 점검비는 8만4700원~36만 원, 소방시설 점검비 65만 원~132만 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입성 비용인 통신사 중

계기 임대료도 연간 단지당 120만 원~250만 원, 재할용품 판매가는 세대당 450원~1500원으로 편차가 컸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차이가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매년 20여 건의 계약을 하는데 이 중 5~6건만 부정정하게 이뤄져도 세대당 매달 3000~5000원, 연간으로 합산하면 4만~6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각종 계약 내역을 간벌로 공개하지 않고 합산 공개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 각종 계약서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입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관리주체와 업자 간 결탁이나 담합 등 비리를 차단하려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비 부과 내역을 보다 세분화하고 표준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도시 정비, 정부 주도 공공사업으로 재편을

광주시가 20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현재 상황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2000년 이후 추진된 52개 도시정비구역 가운데 아파트가 준공된 곳이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공사 중인 곳도 고작 7곳으로, 총 사업 진행률이 19%에 머무르고 있다. 사업 추진의 기본 요소인 조합 설립마저 하지 못한 곳이 절반에 이른다거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광주시에 따르면 노후 주택을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전체 28곳 가운데 10곳이 추진위만 구성하고 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 등의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절차가 진행 중인 9곳도 사업을 맡을 건설업체를 구하지 못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주택 재개발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노후 저층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짓는 주택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16개 대상 아파트 중 9곳은 주민 의사 없이 현재 상황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지 않았다. 난항 끝에 사업이 진행 중인 11곳도 사업 참여를 밝힌 건설사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토지·주택 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도시 정비 사업에 과감한 손질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년 전까지 사업성이 높은 도시 정비 지역에는 잇따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보급이 실수요를 초과한 데다 분양가마저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정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 지역은 오히려 기반시설이 더욱 낙후돼 슬럼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장기 방치된 도시정비구역들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 개발을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無 等 鼓

내일은 대한민국 수험생 59만3500여 명과 학부모 모두가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날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이날 하루를 위해 초·중·고 12년간의 ‘장기 레이스’를 벌여왔을 것이다. 졸음이 쏟아져 내려앉는 눈꺼풀을 연신 비배대며 잠을 쫓고, 성적 스트레스에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수능’이라는 목표판을 향해 달렸을 수험생들을 보면 애잔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처럼 힘들게 쌓아 온 ‘궁든 탑’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무너질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내신과 교내 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을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이미지도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과 사교육 조장의 이유로 폐지 목소리가 높다. 수능이라는 임시 제도는 지난 1994년 도입돼 올해로 24년째가 됐다. 해방 직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 입학생을 선발한 이후 본고사·예비고사·학력고사 등으로 임시 제도는 수없이 바뀌어 왔다. 수능 시험 도입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되면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는 등 ‘누더기 수능’이란 논란도 있었다.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서 수능의 중요성이 항상 강조됐다. 하지만, 수능까지의 ‘임시 지옥’은 한창 창의력과 자율성, 그리고 인성을 키워 나갈 청소년들의 인생에 있어 큰 짐이자 걸림돌이다. 내신과 수능 점수를 내몰리면서 인성(人性)과 자율성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안타깝다. “5시간 자면 합격하

수능 시험

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당5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임시 지옥’을 거친 수험생들이 이제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수험생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수능 결과가 아닌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끝까지 가 봐야 한다. 이번 수능 시험일에도 한파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동안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의 맘과 노력의 소중함을 결실이 이날 하루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최권원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0663>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FAX 227-9600>	업 무 국 <FAX 222-055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년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